

2026년 6월 첫째째 주, 구역 공과

21 천기누설(天機漏洩)

-요한복음 3장 31~36절(신약 146)-

예배순서

• 찬송: 357/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51/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학창 시절 가장 잘했던, 혹은 좋아했던 과목이 있다면?

말씀 속으로

요한복음 3장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깊은 묵상을 담고 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세례요한의 시기 질투를 본 묵상이다. 핵심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땅에서 난 이”의 극명한 대조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의 시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땅에 속한 인간은 자신의 좁은 논리에 갇혀 하늘의 진리를 거부한다. 심지어 여자가 나온 자 중의 가장 큰 세례요한도 땅의 일을 알 뿐이다. 세상의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자칫 땅의 가치만을 전부라 믿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오늘 사도 요한이 폭로하는 하늘의 비밀, ‘천기누설’을 통해 우리의 관점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한다. 땅의 알고리즘을 깨뜨리고 하늘의 생명을 입는 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33절), 결국 믿는 자이다.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한다.

1. 믿음은 하나님이 _____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직접 보고 들으신 분이지만, 인간은 확증편향에 갇혀 진리를 외면한다. 믿음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돈과 권력을 숭배할 때, 내 인생이라는 계약서 위에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인감도장을 찍는 공증 행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마치 은행 보안 인증서를 깔아야 그 은행에 들어가듯, 믿음은 하늘의 보안 인증서가 우리 영혼에 깔리는 사건이다.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로 만드는 엄청난 죄이다(요일 5:10). 진짜 믿음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실임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하며 선포하는 삶을 의미한다.

2. 믿음은 _____을 준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최종 결정권자이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3:36)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다. 영생(조예)는 영원한 생명, 단순히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있고”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형이다. 죽어서 얻는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의 질’을 의미한다. 넷플릭스 구독 결제와 동시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즉시 생기듯,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권한을 즉시 부여받는다. 우리는 영생을 단순히 지옥을 면하는 생존으로 착각하지만, 실제 영생은 우주의 상속자와 한 몸이 되어 그분의 통치를 맛보는 최고급 상태이다. 생명에 질이 있다. 호흡기에 의존해 간신히 연명하는 생명이 있고, 펄떡거리며 뛰는 생명이 있다. 현재 나의 영적 상태는 호흡기에 의존한 비실거리는 모습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펄떡이는 생명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3. 믿음과 _____은 동의어다.

본문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조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믿음)를 결제하고도 재생 버튼(순종)을 누르지 않으면 영상을 볼 수 없듯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면 결코 영생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다. 시기, 질투, 세상의 헛된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용서, 희생, 사랑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비로소 증명하게 된다.

나눔과 기도

- 내 신앙생활에서 ‘결제’(믿음)는 했다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재생 버튼(순종)’을 하지 않고 주저한 영역은 무엇인가? (예: 용서, 사랑, 말씀 읽기, 기도 등등)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온 세계 열방(선교사님, 전쟁)을 위해 기도하자.